

에이비사:

나는 오래전에 아버지께서 시현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어요. 나는 라모나이 왕을 위해 일하던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도록 도왔어요.



라모나이 왕:

나는 복음에 대해 배웠을 때 시현을 보았어요. 나는 예수님을 뵈었어요! 나는 아버지에게 간증을 전했고, 감옥에 있던 선교사들이 구출되도록 도왔어요.



코리호아:

나는 예수님이 가짜라고 믿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려 노력했고,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했어요. 나는 갑자기 말할 수도, 들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!



암몬:

나는 모사이야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에요. 선교 사업을 하던 시절에 나는 라모나이 왕의 양 떼를 지키는 일을 했고, 라모나이 왕과 왕후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.



애타이-니파이-리하이인:

한때 우리는 싸움을 많이 하던 레이맨들이었어요.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, 그래서 전쟁 무기를 묻고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.



엘마 이세:

나는 선지자인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어요. 나는 친구들과 나쁜 선택을 솔하게 하던 때가 있었어요. 하지만 그 친구들과 저는 회개하고 선교사가 되었어요.

나는 누구일까요?—카드를 골라 보세요

이 카드들을 이용해서 친12~13쪽에 나오는 놀이를 해 보세요.



왕후:

나는 사람들이 남편이 죽었다고 말했을 때 남편을 보호했어요.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난 후, 나의 중 에이비사의 도움을 통해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.



모로나이 대장:

나는 니파이인 군대의 대장이예요. 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. 나는 자유의 가치를 만들어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도록 했습니다.



힐라맨의 이천 용사:

우리는 우리의 어머니에게서 신앙에 대해 배웠어요. 우리의 가족을 보호해야 했을 때,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믿었어요.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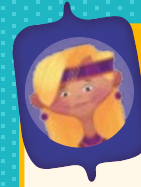
아론:

나는 모사이야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에요. 나는 선교 사업 중에 라모나이 왕의 부모님을 가르쳤어요. 그분들은 복음을 배운 후 자신들의 영토에서 선교사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지요.



아멜리카이아:

나는 정말이지 왕이 되고 싶었어요! 나는 레이맨인 사령관에게 독을 먹여서 그의 군대를 차지했어요. 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해를 입히도록 설득하려고 했어요.



여종:

누군가 나를 다치게 했을 때,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할 만큼 용감했어요. 나는 모로나이 대장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와 함께 일했어요.